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영규
전화 063-259-4308 / 팩스 0502-193-8088

보도자료

2024. 12. 27.(금)

제 목

20년 넘게 암장되어 있던 강도살인 사건을 DNA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하여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오늘(12. 27.) 2001년 9월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가정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 1명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고, 그 배우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가한 후 현금을 빼앗아 간 2인조 강도 중 한 명인 피고인 A를 강도살인죄로 기소하였음
- 범인들은 피해자 부부를 결박했던 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범행 현장에 남기고 갔으나,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이 불가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음
 - ※ '15. 7. 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 배제
- 검찰은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2020년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DNA 분석을 의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전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 ※ '10. 도입된 중범죄 수형인 등 DNA 채취 제도를 통해 피고인 A의 DNA 확보
-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압수물 일체에 대한 DNA 재감정 의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진술분석, 접견녹취록 분석, 법의학 자문,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 A의 2인조 강도살인 범행 사실을 확인하였음
- 검찰은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범망을 피해가는 범죄가 없도록 노력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음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 (남, 44세)

※ A는 2017년도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특수강간) 범행으로 전주교도소 수형 중(징역 13년)

- '01. 9. 8.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연립주택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피해자 B의 주거 안으로 침입,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37세)와 배우자 C(여, 33세)를 미리 준비한 회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 B의 목, 심장, 복부, 팔, 어깨 등 부위를 칼로 20회 찔러 살해하고, 배우자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가 [강도살인]

2

수사 경과

- '01. 9. ~ '03. 10. 경찰, 사건 발생 후 대대적인 범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범인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미제 사건 편철
- '20. 6. 경찰, 국과수에 본건 압수물의 DNA 감정 의뢰
- '20. 8. 국과수,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대검찰청·국과수 DB에 등록된 피고인 A의 DNA 일치 사실 확인
- '20. 9. ~ '21. 3. 안산단원서,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진행
- '21. 3. 사건 송치 후 피고인 A의 현재지(전주교도소)를 관할하는 전주지점으로 이송
- '21. 3. ~ '24. 11. 전주지검, 압수물 일체 DNA 재감정, 피고인 A의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법의학 자문 의뢰 등 보완수사
※ 피고인 A는 아무런 기억이 없고, 안산시에 가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변명
※ 피고인 A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는 DNA 외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불상 공범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공범에 대해서는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 '24. 12. 27. 검찰, 피고인 A 기소

① DNA 과학수사를 통해 암장될뻔한 장기 미제사건 해결

- 검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0. 7. 시행, 이하 ‘DNA법’)에 따라 성폭력 등 중대 범죄의 ① 수형인, ② 구속 피의자, ③ 범죄 현장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관리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① 범행 당시 기술로는 분석할 수 없었던 장기 미제사건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증거를 최신 기술로 분석하고, ② 그 결과를 DNA법의 시행으로 신규 채취·등록된 DNA와 비교·대조하는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약 20년 만에 범인 A를 특정한 사례임
 - ※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A의 DNA가 DNA법에 따라 DB에 등록·관리되고 있어 범인 특정이 가능하였음
 - ※ ‘15. 7. 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 배제(단, 피해자의 배우자 C에 대한 강도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여전히 적용되므로 부득이 기소하지 못하였음)
- 피고인 A는 사건 현장에 지문이나 족적을 남기지 않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함으로써 약 20년 동안 범망을 피해 왔지만, ‘15. 7. 3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배제되면서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 C를 결박하기 위해 사용하려다 소파에 방치한 절연 테이프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음
 - ※ 피고인 A는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흥기로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음

② 검찰의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 A의 범죄를 규명

- 피고인 A는 DNA 증거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범인으로 특정되어 처벌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현장 부재,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음
- 전주지검은 본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 압수물 전체에 대한 DNA 재감정, ▲ 피고인 A와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 사건 관계인 진술분석, ▲ 피고인 A 점건 녹취 분석, ▲ 법의학 자문 의뢰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 DNA 증거의 무결성을 객관적으로 재확인하고, 피고인의 변호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안산시에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사건 당일 자동차를 안산시에 이전 등록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보강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였음

4

향후 계획

- 공범 용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범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공소유지 과정 등에서 공범 관련 단서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공범의 죄책을 철저히 밝혀내겠음
- 앞으로도 검찰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미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필벌하는 한편, 흉악 범행을 저지르고도 20년 넘게 처벌을 피한 피고인 A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